

## 노부부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서 수 규<sup>1)</sup> 이 윤 희<sup>1)</sup> 안 정 신<sup>2)</sup> 정 영 숙<sup>†1)</sup>

<sup>1)</sup>부산대학교 심리학과

<sup>2)</sup>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요 대인관계인 부부관계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갈등을 측정하고자 노부부갈등척도(Elderly Couple Conflict Scale: ECC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4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48개의 ECCS예비문항과 부부관계만족도, 노인부부관계특성척도, 노인용사기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GCMS), 행복지수척도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CCS는 총 32문항으로 6요인구조(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인태도,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무시및소외, 가사불만, 부부의가족문제)를 보였다.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68 ~ .93이며, 부부관계만족도, 노인부부관계특성척도, PGCMS, 행복지수척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어, ECCS의 하위요인들 중 부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를 예언해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만족도를 예언하는 요인에는 남자노인의 경우 배려및관심부족이, 여자노인의 경우는 배려및관심부족과 가사불만이 확인되었다. PGCMS와 행복지수척도를 예언해주는 요인으로, 남자노인의 경우 무시및소외와 부부의가족문제, 여자노인의 경우는 강압적인태도, 배려및관심부족, 부부의가족문제가 확인되었다.

주요어 : 노년기, 부부관계, 노부부갈등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135, E-mail: yschong@pusan.ac.kr

노인인구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것, 즉 성숙한 노화, 성공적 노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김경식, 이은주, 2010; 김경호, 김지훈, 2008, 2009; 김미령, 2008;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박경란, 이영숙, 2002;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Baltes & Baltes, 1990; Chou & Chi, 2002; Crosnoe & Elder, 2002; Fisher, 1995; Ryff, 1989; Vailant & Mukamal, 2001). 한국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미있는 타인인 가족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는 노인의 건강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강유진, 2007; 강인, 2003;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김희주, 주경희, 2008; 백지은, 최혜경, 2005; 성혜영, 유정현, 2002; 신학진, 전상남, 2009; 윤현숙, 유희정, 2006; 정여진, 안정신, 2010).

평균수명의 증가와 남녀 노인의 수명차이 감소, 핵가족화와 그로 인한 노인 단독세대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게 한다.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시간, 노동,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기로, 자녀양육 책임과 직업적 요구가 약화됨으로서 남녀의 성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1998; 전길양, 임선영, 1998). 또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자원이 감소하게 되는 시기로 부부 간에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협동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전길양 등, 1998). 이렇듯 노년기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이며, 부부

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요구되는 제 2의 부부기이다(성영모, 2013). 이러한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응하여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김미혜, 김정원, 백명희, 송혜미, 2007;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2009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은 5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중에서 23.1%를 차지하여 1997년(9.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혼은 2006년 3,071건, 2007년 3,481건에서 2008년 4,4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부의 약 21.5%가 지난 1년 간 부부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와 결혼 20년 차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부부갈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는 노인들이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재엽, 1998; 천혜정, 최혜경, 강인, 2006; 서수균 등, 2013에서 재인용). 결혼 만족도로 보더라도, 29세 이하의 여성 배우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3점인 반면, 60대 이후는 3.53으로 나타났고, 남성 배우자의 경우도 20대의 경우 4.27점인데 비해 60대 이후는 3.76으로 낮은 추이를 보였다(통계청, 2012).

노년기 부부갈등의 증가는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 및 역할전환, 역할 적응과정과 관련이 깊다(김태현, 1998). 오늘날의 60대 이상 노년층은 1930년에서 1950년대에 사회화를 거친 세대로 가부장적인 부계혈연 중심 문화에서 여필종부(女必從父)와 같은 엄격한 역할분담과 상하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유교적인 윤리규범을 체득하였다(김병희, 1996; 이유숙, 1998; 한규석, 2002). 또한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

적을 이룬 주역들로서 남편은 경제성장과 생계부양자로, 아내는 가사와 육아의 담당자로 성별 노동분업에 입각한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김은정, 2008). 197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도래함에 따라 이들에게 가족은 생존의 단위 또 계층상승을 꾀하는 전략적 투자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경(2003)은 한국 가족의 중요한 목적은 자녀양육과 교육이며,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통해 생존 및 계층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원 간 정서적 교류를 위한 노력은 다소 소홀하게 되었다(심창교, 2009; 황정미,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오늘날의 노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을 다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남자노인과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수용한 여자노인은 의사소통 방식 및 부부생활 전반에서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김경신, 1998; 노치영, 1995; 서수균 등, 2013; 심창교, 2009). 둘째, 노년기 부부는 생계부양자와 자녀양육자로 각자의 역할에 치중하느라 부부 공동의 관심사, 여가활동을 개발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친밀한 정서적 교류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나치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비중을 두어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산업화를 거치며 구조상 핵가족화되어 있으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확대가족의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시댁 혹은 처가와 같은 원가족이나 친인척 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기 쉬울 것이다(정여진, 안정신, 2010).

현재까지 노부부갈등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시작단계에 있다. 이제까

지 진행된 노부부갈등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첫째, 노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김재엽 등(1998)은 교육수준이, 전길양 등(1998)은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노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경신 등(2001)은 노부부갈등의 영향변인을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부부관계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노부부 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부부관계 변인인 의사소통 효율성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라 영향변인이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남자노인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친밀감, 일상생활활동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이 영향변인인데 반해, 여자노인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일상생활활동능력, 내적 통제성만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부 갈등의 양상 및 결과에 있어 남녀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부부갈등이 생활만족, 결혼만족, 이혼 및 심리적 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노인의 우울, 황혼이혼(사고 및 시도), 범죄충동(자기중심성충동, 폭력충동, 가출충동), 결혼 불안정성이 높고, 생활만족은 낮았다(강신성, 임왕규, 2013; 김경신 등, 2003; 김희국, 2010; 임선영, 김태현, 2002; 전길량 등, 1998; 정연표, 이홍직, 2011; 차성희, 2005). 이 연구결과의 공통점은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부부갈등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노년기 부부 관계 및 갈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심창교(2009)는 6쌍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8회기의 부부성숙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자아통합, 의사소통, 친밀감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재욱(2011)은 10쌍의 노부부에게 33회기의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부부갈등 개선과 공동여가찾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볼 때 유의해야할 것은 연구마다 노부부갈등의 영역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부부관계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김재엽 등(1998)은 생활비 관리, 청소 및 요리, 자녀 문제를 부부갈등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길양 등(1998)은 노부부의 갈등을 부부 간의 성격문제,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문제, 성문제, 자녀문제로 조사하였다. 차성희(2005)는 의사소통, 경제, 가정생활, 성 및 애정 등 4개 하위차원을 부부갈등에 포함시켰고, 강신성 등(2013)은 차성희(200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임선영 등(2002)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노부부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자녀관계, 경제, 건강, 성격, 의사소통, 가치관및생활습관, 애정및성적문제 등 7가지가 포함되었다. 김경신 등(2001)과 김희국(2010) 외 기타 노부부갈등 연구는 이경희(1992)가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경희(1998)는 Marks(1989)의 부부관계영역에 대한 체계론적 분류범주에 기초하여, 기존에 실시된 모든 연령대의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 정리하여 선행연구들이 취급한 갈등영역 모두를 포괄하여 부부갈등 영역을 개인특성영역, 부부관계특성영역,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으로 설정하고 부부갈등척도를 개발하였다. 개인특성 영역은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건강 등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의 정도를 반영하고, 부부관계특성영역은 의

사소통, 성생활, 애정이나 관심의 부족,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으로 인한 갈등을 측정하며, 공동생활영역에서는 금전관리, 소비문제, 가사노동분담, 주거문제, 가족여가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도를 포함하며, 제삼자특성영역에서는 친인척관계, 자녀와 손자녀 문제, 사회 활동이나 직업상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측정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노년기 부부갈등 연구는 이경희(1998)가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소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경희(1998)가 개발한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갈등을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하는 제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겠으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 부부갈등을 ‘배우자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을 느낀다.’, ‘건강 상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항으로 확인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부갈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기존의 노부부갈등연구에서 사용된 노부부갈등척도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노부부갈등 척도는 연구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직접 얻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인대상자에게 실시하기 위해 임의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여 척도타당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론과 논리로 유추한 문항들은 노부부갈등을 추상적,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노부부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사용된 노부부갈등척도의 하위요

인은 의사소통문제, 애정문제, 가사문제, 생활 습관 문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노부부의 갈등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즉, 의사소통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는지, 애정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갈등의 내용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존 척도들의 제한점을 고려해 볼 때,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하여 얻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노부부갈등척도(Elderly Couple Conflict Scale: ECCS)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에게서 직접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ECCS는 노인이 경험하는 실제 부부갈등의 내용과 양상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부의 상반된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하였으며(Coleman, 1984), 노부부가 실제 경험하는 부부갈등을 평가하기 위해 ECCS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ECCS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ECCS와 부부관계만족도, 노인 부부관계특성척도, PGCMS, 행복지수척도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는 부부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부부갈등을 잘 다루고 해결할수록 부부관계만족이 증가한다(이경성, 2001, 최규련, 1995). 부부 간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성관계에 만족하고 애정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는 부부관계특성을 나타내는 결속도, 의사소통 능력, 역할수

행 능력이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용사기척도와 행복지수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겠다. 이들 변인들이 노부부갈등척도와 부적상관을 이루는지 확인함으로써 ECC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ECCS의 하위요인이 부부관계만족과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부갈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ECCS의 하위요인 중 부부관계만족과 노인의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갈등요인이 무엇이며,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CCS는 오늘날의 노인이 겪는 부부갈등의 핵심요소를 명료하게 드러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부갈등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부부갈등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성숙한 노화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66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전체 문항의 1/2이 넘는 불성실한 23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44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60~65세는 139명(31.4%), 66~70세는 110명(24.8%), 71~75세는 105명(23.7%), 76~80세는 64명(14.5%), 81~85세는 20명(4.5%), 85세 이상

은 4명(1.1%)로, 평균 연령은 69.76(범위 60~88, SD=6.38)세였고,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은 각각 200명(45.1%), 243명(54.9%)이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165명(37.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 103명(23.3%), 대학교 졸업이 80명(20.1%), 초등학교 졸업이 61명(13.8%), 무학 11명(2.5%), 대학원 졸업이 10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동거가 341명(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사별 83명(18.7%), 배우자 별거, 이혼 각 8명(1.8%) 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노부부갈등척도

**예비문항 선정방법 및 절차.** 예비문항은 서수균 등(2013)이 우리나라 노인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경험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노인들에게 최근에 배우자와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 ‘화가 난 일’, ‘생각이나 뜻이 달라서 언짢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 다음, 그 경험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문은 외현적, 내재적 갈등 경험 모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즉,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 ‘생각이나 뜻이 달라서 언짢았던 일’은 갈등이 외현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이끌어내고,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 ‘화가 난 일’에 대한 질문은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개인 내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 분류 결과, 노인은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개인 내 영역, 부부 외 관계 영역

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57개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의미가 유사한 문항, 10이하로 응답빈도가 낮은 9개 문항이 제외되어 48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48문항 중 일부는 의미를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선정된 48문항 중 2문항은 남자 노인에만, 또 다른 2문항은 여자 노인에만 해당하여, 노인 각자는 총 46문항에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기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 부부관계만족도

최동숙(1992), 김경숙(1993), 유지영(1996), 장병용(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수연(2000)이 작성한 가족관계 만족도 중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부간의 대화의 빈도나 내용에 대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서로 신뢰하는 정도에 대해”, “부부간에 서로 감정이나 개성을 존중해주는 정도에 대해”, “어르신과 배우자간의 성 생활에 대해”. 각 문항은 ‘매우 만족 한다’ 5점에서 ‘매우 불만족 한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수연(2000)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 노인부부관계특성척도

빈곤 노인의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과 Bishop(1991)이 개발한 가족평가도구(Family assessment device: FAD)를 전계영(2007)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문아람(2007)

이 재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노인 부부 간의 결속감, 노인 부부 간의 의사소통 능력, 노인 부부 간 각자의 역할수행 능력으로 구성된 3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결속감(5문항)의 경우, “우리부부는 무슨 일이든 함께 하려고 한다.”, 의사소통능력(4문항)의 경우, “우리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상의한다.”, 역할수행능력(4문항)의 경우, “우리부부는 집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문아람(2007)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결속도 .93, 의사소통 능력 .81, 역할수행 능력 .79이었다.

**노인용사기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GCMS)**

노인의 사기를 측정하기 위해 Lawton(1975)이 개발한 것으로 문애리(1996)가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긍정적 문항: 4문항, 부정적인 문항: 13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예 문항으로는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나는 지금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 등이 있다. 내적합치도는 Lawton(1975)의 연구에서 .85였다.

**행복지수척도**

서은국,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이 개발한 한국인의 행복지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3문항), 긍정 정서(3문항), 부정 정서(3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

되었다. 전체 행복지수척도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의 합에서 부정정서의 점수를 뺀 점수이다. 삶의 만족의 예 문항으로는 “나는 내 삶에서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있으며, Likert형의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긍정 정서에는 “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부정 정서에 “짜증, 부정적 기분, 무기력함” 문항이 있으며, Likert형의 7점 척도(1: 전혀 느끼지 않았다, 4: 보통이다, 7: 항상 느꼈다)상에서 평정되었다. 내적 합치도는 개발 당시 삶의 만족이 .89, 긍정정서 .85, 부정정서 .81이었다.

**절차와 자료분석**

2013년 2~3월에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작성하게 하거나, 일부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읽어주며 작성하였다. SPSS windows18.0을 이용하여, 노부부갈등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48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8개로 그 값은 다음과 같았다: 18.08, 2.35, 1.87, 1.69, 1.45, 1.38, 1.18, 1.15(.998, .957..). 스크리 검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요인을 넘어가면서 요인 간 고유치 차이

표 1. 6요인 구조계수

문항	요인계수					
	1	2	3	4	5	6
<b>요인 1. 배려및관심부족(11문항)</b>						
기념일(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겨주지 않는다.(72)	.718	-.038	.036	.037	.071	-.089
내가 예쁜 것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83)	.659	-.136	-.004	-.165	.001	-.006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68)	.657	-.150	-.062	.129	-.039	.114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지 않는다.(79)	.636	-.102	.003	-.067	.038	.094
내가 몸이 아파도 신경써주지 않는다.(78)	.604	-.039	.134	-.198	.058	-.101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사과하지 않는다.(78)	.596	-.273	.067	-.085	-.011	-.147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80)	.567	.034	.049	-.361	-.073	.021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79)	.564	.116	.077	-.321	.075	.072
부부가 동반해서 하는 활동(운동, 모임 등)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77)	.506	-.193	.140	.025	-.002	.213
늦는다고 미리 전화연락을 주지 않는다.(74)	.487	.051	.341	-.047	-.068	.061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79)	.470	-.036	.156	-.326	.071	-.034
<b>요인 2. 강압적인태도(3문항)</b>						
자기가 틀렸어도 싸우면 꼭 이기려고 한다.(89)	.179	-.640	.072	-.117	-.053	-.033
내가 하려는 것을 막고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87)	.051	-.624	.106	-.280	.037	-.090
사소한 실수에도 자주 꼬투리를 잡는다.(85)	.044	-.551	.130	-.145	-.111	.115
<b>요인 3.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5문항)</b>						
너무 늦게 귀가 한다.(80)	.119	.024	.740	-.048	-.030	-.043
돈을 쓸데 없이 많이 쓴다.(78)	.041	-.054	.597	-.059	-.030	.047
나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일, 바깥사람만 신경 쓴다.(77)	.122	-.094	.551	-.351	-.040	-.241
술을 지나치게 많이 또는 자주 마신다.(67)	.013	-.079	.451	-.013	.158	.079
금전문제(용돈, 경조사비등)로 자주 다툰다.(75)	.138	-.171	.449	-.080	.009	.138
<b>요인 4. 무시및소외(7문항)</b>						
내 말을 안 듣고 단청을 피운다.(83)	.056	-.046	-.033	-.743	.146	.112
내 마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83)	.061	-.139	.034	-.674	.007	-.021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79)	-.008	-.123	.040	-.647	.049	.011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종종 소외된다.(77)	-.021	.003	.178	-.638	-.044	.048
내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한다.(79)	.036	-.234	-.080	-.607	.132	.123
이웃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과 나를 자주 비교하곤 한다.(68)	-.057	-.142	.036	-.478	-.231	.199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등 남편(혹은 아내)대접을 하지 않는다.(80)	.185	-.406	.054	-.433	-.058	-.061
<b>요인 5. 가사불만(4문항)</b>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86)*	.085	-.003	.112	-.148	.501	.114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87)*	.215	.154	.122	-.180	.484	.084
집안일을 도와주는데도 아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80)**	.154	.001	.112	-.150	-.465	.220
아내가 가사일을 소홀히 한다.(75)**	.157	.095	.145	-.137	-.382	.172
<b>요인 6. 부부의가족문제(2문항)</b>						
시댁(혹은처가)과 있었던 과거의 갈등이나 잘못을 자주 이야기 한다.(88)	-.155	-.204	.217	-.132	-.088	.477
자녀문제(직장, 결혼문제 등)로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87)	.007	-.101	.199	-.224	-.055	.422
요인 고유치	12.06	8.25	9.14	12.26	1.38	5.94
전체설명변량(%)	55.94					

주. \*는 여자노인만 응답; \*\*는 남자노인만 응답



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요인 수를 2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광배(2004)에 따르면 요인의 해석은 기계적인 혹은 원칙이나 규칙에 입각한 객관적 해석 보다, 연구자의 경험 및 통찰력, 이론적 관점, 자료의 전체적 속성에 대한 이해 등에 의존한 주관적 해석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예비문항의 토대가 된 서수균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 부부의 갈등 영역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부부 갈등을 보다 구체적,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였다. 요인 간 고유치 차이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로 줄어드는 여섯 번째 요인을 포함하여 요인 수를 6개로 정하고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오블리민(oblimin) 방법으로 회전하여 요인계수행렬을 구하였다. 요인계수행렬에서 표적 요인계수가 .40이하거나 비표적 요인계수가 .30 이상인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문항 16개가 제외되어, 최종 척도는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노부부갈등척도의 첫 번째 요인(11문항)은 ‘배려및관심부족’을, 두 번째 요인(3문항)은 ‘강압적인태도’를, 세 번째 요인(5문항)은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을, 네 번째 요인(7문항)은 ‘무시및소외’를, 다섯 번째 요인(4문항)은 ‘가사불만’을, 여섯 번째 요인은 ‘부부의가족문제’를 반영하였다.

####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배려및관심부족(11문항)은 .93, 강압적인태도(3문항)은 .85,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5문항)은 .81, 무시및소

외(7문항)은 .90, 가사불만(4문항)은 .53, 부부의가족문제(2문항)은 .71이었다. 가사불만의 경우 남녀가 응답하는 문항이 상이한데, 남자의 가사불만(2문항)은 .68, 여자의 가사불만(2문항)은 .75였다. 가사불만 하위요인이 5개 이하의 적은 문항수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Nunnally, 1978). 노부부갈등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1로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각 문항과 하위척도 총점 간의 상관은 표 1에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으며 .67에서 .89 사이를 보였다. 표 2에 따르면, 하위척도 간의 상관은 .38에서 .73 사이로, 하위 6요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무시 및 소외는 배려및관심부족과 강압적인태도와 각각 .70, .73으로 꽤 높은 상관을 보였다.

#### 하위척도의 남녀차이 검증

노부부갈등척도의 하위요인별로 남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노부부갈등척도의 하위요인 중 부부의가족문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여자노인이 남자노인 보다 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인태도,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무시 및 소외, 가사불만요인에서 부부갈등을 더 많이 보였다.

#### 수렴타당도

노부부갈등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

표 2.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하위요인 명(문항수)	배려및 관심부족	강압적인 태도	무절제및 불충실한 행동	무시및 소외	가사불만	Cronbach $\alpha$ 값
배려및관심부족(11)						.93
강압적인태도(3)	.63**					.85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5)	.64**	.56**				.81
무시및소외(7)	.70**	.73**	.62**			.90
가사불만(4)	.55**	.37**	.51**	.44**		.53
부부의가족문제(2)	.49**	.49**	.53**	.55**	.38**	.7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녀 차이 검증

하위요인	평균(표준편차)			$t$
	전체(N=443)	남자(n=200)	여자(n=243)	
배려및관심부족	25.84(10.92)	23.20(9.62)	27.98(11.45)	-4.67***
강압적인태도	6.86(3.32)	6.29(2.92)	7.33(3.56)	-3.32**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9.19(4.48)	7.76(3.50)	10.37(4.85)	-6.36***
무시및소외	14.95(6.53)	14.01(6.26)	15.72(6.67)	-2.75**
가사불만	4.49(2.58)	3.40(1.94)	5.41(2.69)	-8.75***
부부의가족문제	4.02(1.97)	3.95(1.86)	4.09(2.06)	-7.20

\*  $p < .05$ , \*\*  $p < .01$ , \*\*\*  $p < .001$

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노부부갈등척도는 모든 척도와 증등도 이상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여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여 주었다. 노인의 일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는 PGCMS와 행복지수척도와는 보통의 상관을 보인데 비해, 부부관계만족도, 노인부부관계특성, 및 노인부부관계특성의 하위요인인 결속감, 의사소통 능력, 역할수행 능력과는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노부부갈등척도의 하위척도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기타 척도와 상관 중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부갈등척도의 다른 하위척도들 보다 배려및관심부족이 부부관계만족도, 노인부부관계특성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배려및관심부족 다음으로 무시및소외가 부부관계만족도, 결속감, 의사소통 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배려및관심부족 다음으로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하위요인이 역할수행 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넷째, 노인의 일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와 노부부갈등척도의 하위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PGCMS의 경우, 부부의가족문제가 다른 하위

표 4. 노부부갈등척도와 다른 척도 및 연령, 학력과의 상관계수

척도	배려및 관심부족	강압적인 태도	무절제및 불충실한 행동	무시및 소외	가사불만	부부의 가족문제	총점
부부관계만족도	-.55**	-.35**	-.37**	-.44**	-.39**	-.36**	-.53**
노인부부관계특성	-.51**	-.33**	-.41**	-.43**	-.38**	-.38**	-.52**
결속감	-.53**	-.33**	-.39**	-.44**	-.39**	-.35**	-.53**
의사소통 능력	-.43**	-.30**	-.36**	-.39**	-.30**	-.34**	-.45**
역할수행 능력	-.40**	-.25**	-.37**	-.34**	-.34**	-.34**	-.42**
PGCMS	-.23**	-.25**	-.23**	-.30**	-.26**	-.34**	-.31**
행복지수척도	-.29**	-.18**	-.23**	-.31**	-.22**	-.27**	-.31**
연령	.02	.01	-.05	.01	-.03	-.04	.00
학력	-.25**	-.20**	-.25**	-.29**	-.25**	-.17**	-.30**

PGCMS: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남녀노인의 부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에 대한 노인부부갈등의 단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B	SE	$\beta$	$R^2$	$\Delta R^2$	공차
부부 관계 만족도	단계 1						
	연령	-.02	.04	-.03	.00	.00	.93
	학력	.05	.09	.04			.93
	남자						
	단계 2						
	연령	-.01	.04	-.02	.26	.26***	.93
	학력	-.02	.08	-.02			.91
	배려및관심부족	-.22	.02	-.51***			.98
	여자						
	단계 1						
연령	.09	.04	.13*	.04	.04	.88	
학력	.24	.08	.20**	.88		.88	
단계 2							
연령	.11	.03	.15	.36		.88	
학력	.10	.06	.08	.84		.84	
배려및관심부족	-.18	.02	-.48***	.75	.32	.75	
가사불만	-.26	.09	-.15**	.77		.77	

(계속)

		예언변인	B	SE	$\beta$	$R^2$	$\Delta R^2$	공차
PGCMS	남자	단계 1						
		연령	.07	.11	.04	.00	.00	.93
		학력	.08	.23	.02			.93
		단계 2						
		연령	.07	.11	.04			.92
		학력	-.06	.21	-.02	.17	.16***	.91
	무시및소외	-.47	.13	-.28**			.62	
	부부의가족문제	-.99	.46	-.17*			.62	
	여자	단계 1						
		연령	.14	.12	.08	.02	.02	.88
		학력	.45	.20	.15	.88		.88
		단계 2						
연령		.12	.11	.06	.14		.86	
학력		.23	.19	.07	.84	.12	.84	
부부의가족문제	-1.36	.37	-.25***	.76		.76		
강압적인태도	-.53	.21	-.17*	.76		.76		
행복 지수 척도	남자	단계 1						
		연령	.04	.08	.04	.00	.00	.93
		학력	.16	.16	.07			.93
		단계 2						
		연령	.05	.08	.05			.93
		학력	.09	.15	.04	.07	.06***	.91
	무시및소외	-.30	.08	-.26***			.98	
	여자	단계 1						
		연령	.21	.09	.15	.02	.02	.88
		학력	.29	.15	.13			.88
		단계 2						
		연령	.20	.08	.15	.12	.09	.87
학력		.12	.14	.05			.83	
배려및관심부족	-.15	.05	-.21**			.78		
부부의가족문제	-.66	.27	-.16*			.79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p < .05$ , \*\* $p < .01$ , \*\*\* $p < .001$

척도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행복지수척도의 경우, 배려및관심부족과 부부의가족문제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다소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노부부갈등은 연령과는 무관하였으나, 학력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에 대한 노부부갈등의 회귀분석**

노년기 부부갈등이 노인의 부부관계만족, 사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단계에서 연령과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노부부갈등척도의 6개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지정하고 성별을 달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남자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배려및관심부족이 부부관계만족도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 PGCMS는 무시및소외에 의해 15%, 부부의가족문제에 의해 2% 추가적으로 설명되었다. 행복지수척도는 무시및소외에 의해 7%가 설명되었다.

표 5에 제시한 여성 노인의 경우, 배려및관심부족이 부부관계만족 변량의 34%를 설명하였으며, 가사불만이 2% 추가 설명하였다. PGCMS는 부부의가족문제에 의해 12% 설명되었으며, 강압적인태도에 의해 2% 추가 설명되었다. 행복지수척도의 경우, 배려및관심부족이 10%를, 부부의가족문제가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논 의**

노년기 부부관계는 다른 생애주기에서의 부부관계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오

늘날의 노인들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주요한 대인관계인 부부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노부부갈등척도(ECC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수균 등(2013)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CCS는 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인태도,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무시및소외, 가사불만, 부부의가족문제의 6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문항 신뢰도는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척도 문항은 .53~.93으로 적절한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배려및관심부족 요인(11문항)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덜 가지고 있으며, 이해심과 배려행동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관련한 갈등을 반영한다. 강압적인태도 요인(3문항)은 배우자가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이나 방식을 강요하는데서 오는 갈등을 담고 있다.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요인(5문항)은 금전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 혹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 과음 혹은 과소비와 같은 무계획적이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는 행동을 평가한다. 무시및소외 요인(7문항)은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사람 편만 드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담고 있다. 가사불만 요인(4문항)은 배우자가 가사일에 소홀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경우 혹은 가사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도와주어도 불평을 하는 경우를 반영한다. 부부의가족문제 요인(2문항)은 원가족과 관련한 불편한 과거사를 들먹이거나 자녀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데서 오는 갈등을 담고 있다.

이경희(1998)의 분류기준으로 ECCS의 요인들을 평가해 보면, 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인 태도, 무시및소외는 부부관계특성영역으로, 가사불만은 공동생활영역으로, 부부외가족문제는 제삼자특성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요인의 경우, 부부관계특성영역과 공동생활영역과 개인특성영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어 이 세 영역 모두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는 ECCS가 부부가 생활하고 접촉하는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ECCS의 경우, 다른 가족주기에 있는 부부의 부부갈등과는 달리 노년기 부부갈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시간, 노동,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1998; 전길양, 임선영, 1998). ECCS는 부부관계영역의 갈등을 보다 비중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태도, 무시및소외, 무절제및불충실한행동 요인은 노인이 부부관계영역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반영하며, 갈등양상을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성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며 가정 내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일상적으로 부딪히기 쉬운 것이 가사영역이다. ECCS의 가사불만 요인에서 가사영역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사영역에서의 남녀 노인의 서로 다른 욕구 및 갈등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CCS는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항을 살펴보면, ‘기념일(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몸이 아파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늦는다고 미리 전화연락을 주지 않는다.’, ‘자기가 틀렸어도 싸우면 꼭 이기려고 한다.’, ‘내 말을 안 듣고 단청을 피운다.’, ‘내 마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 ‘시댁(처가)과 있었던 과거의 갈등이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한다.’ 등이 있다. 가사불만 요인의 경우, 여성에게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남성에게는 ‘집안일을 도와주는데도 아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아내가 가사일을 소홀히 한다.’와 같이 여자노인과 남자노인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가 반영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ECCS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노부부 간 갈등양상을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상관분석 결과, ECCS의 소척도들은 부부관계만족도, 노인부부관계특성, PGCMS, 한국인의 행복지수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특히 ECCS의 배려및관심부족요인이 부부관계만족도와 노인부부관계특성의 결속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ECCS의 6개의 하위요인 중 노인부부관계만족과 행복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노인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배려및관심부족요인이 예언변인인 반면, 여자 노인은 배려및관심부족에 더해 가사불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사문제를 배우자의 배려와 관심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신호용, 조병은, 1997).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첫째, ECCS의 부부외가족문제가 우리나라 노인의 부부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반적인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 유대가 긴밀하며 가족구성원 간 유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므로, 원가족 및 성인자녀와의 문제로 인한 부부 간 갈등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남녀공통으로 나온 부부외가족문제를 제외하고,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노부부갈등요인의 남녀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자 노인의 PGCMS와 행복지수척도에는 무시및소외가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된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배려및관심부족, 강압적인태도가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부장적인 부계혈연 중심 문화에 대한 남녀의 상이한 역할과 지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자 노인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고수하여 무시와 소외에 취약하고, 여자노인은 여필종부(女必從父)와 같은 엄격한 역할분담과 상하관계 질서 속에서 복종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배우자의 강압적인태도와 배려및관심부족에 취약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CCS는 노인에게 직접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로,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갈등을 평가함과 동시에, 다른 가족주기에 놓인 부부와는 달리,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부관계영역에서 겪는 부부갈등을 보다 비중있게 반영하며 그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둘째, ECCS는 1930년에서 1950년대에 출생한 오늘날의 60대 이상 노인이 부부관계

에서 겪는 갈등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CCS는 문항표집에서 타당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부산 및 경남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지역 노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연령이 약 70세로 비교적 젊은 노인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ECCS가 노년기부부갈등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하며 효율적인 도구인지는 이후의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신성, 임왕규 (2013).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78-192.

강유진 (2007).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8(4), 639-653.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 95-116.

고재욱 (2011). 노년기의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119-143.

김경숙 (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 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경식,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 424-432.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경신, 이선미 (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 인 (2004). 한국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 김정원, 백명희, 송혜미 (2007). 남편이 은퇴한 여성 노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383-416.
- 김영자 (1992). 도시 지역 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 갈등정도, 정신건강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08). 여성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본 노년기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1), 27-67.
- 김재엽 (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18(1), 170-183.
- 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김태현 (1998).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세대 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7, 265-288.
- 김희국 (2010).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음주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95-106.
- 김희주, 주경희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화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노치영 (1995).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애리 (1996). 재미 한인 단독가구의 노인의 사기(Morale)와 사기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16(1), 96-109.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광배 (2004). 다변량 분석. 서울: 학지사.
- 백지은 · 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09.
- 서은국,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신학진, 전상남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



- 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46, 29-51.
- 심창교 (2009). 노년기 부부성숙 프로그램 개발-개입연구 방법의 적용. 한국임상사회사업연구, 6(1), 69-95.
- 윤지영 (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연 (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숙 (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선영, 김태현 (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임정빈 (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병옥 (1997).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 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계영 (1997). 빈곤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길양, 임선영 (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4), 143-161.
- 정연표, 이홍직 (2011). 노년기 부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 연구논총, 13(2), 151-180.
- 차성희 (2005). 노년기 부부갈등이 이혼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원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천혜정, 최혜경, 강 인 (2006). 결혼 지속 연수에 따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방법의 차이와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동숙 (1992).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Atchley R. C. (1994). *Social Forces &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ers.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pp. 1-34). NewYork: Cambridge Univ. Press.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4(1), 1-15.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p. 21-29, The Bobbs-Merrill.

- Crosnoe, R., & Elde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Epstein, N. B., & Bishop, D. S. (1991), *Problem-centered systems therapy of the famil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 of Family Therapy*. Vol. 1. (pp. 444-482),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 Fisher, B. J.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1(3), 239-251.
- Hayes, M.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Jacobson, N.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ing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el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Marks, S. R. (1989). Toward a systems theory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5-26.
- Nunnally, J. C. (1975).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35-55.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1차원고접수 : 2013. 09. 27.  
수정원고접수 : 2014. 04. 29.  
최종게재결정 : 2014. 05. 19.

##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Elderly Couple Conflict Scale

Su-gyun Seo<sup>1)</sup>      Yun-hee Lee<sup>1)</sup>      Jeong-shin An<sup>2)</sup>      Young-sook Cho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Elderly Couple Conflict Scale(ECCS) to measure the elderly's conflicts with spouse as elderly's primary personal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48 initial items of ECCS was administrated to 443 elderly people who were over 60 years old with other scales involved i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Elderly Coupl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PGCMS), and Korean Happiness Index.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alysis were that ECCS was composed of 32 items, 6 factors(regard/concern lack, forceful attitude, intemperance/disloyalty behaviors to family, neglect/alienation, housework discontent, other family issues). The internal reliabilities of each factors were .68~.93. ECC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Elderly Coupl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GCMS, and Korean Happiness Index to suggest satisfactory discriminant validity. Then, to finding the strong factors among sub-factors of ECCS to predict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PGCMS and Korean Happiness Index, we implemente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n male elderly, The strongest predictors of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regard/concern lack, in female elderly, regard/concern lack and housework discontent. The strongest predictors of PGCMS and Korean Happiness Index were neglect/alienation, other family issues in male elderly, regard/concern lack, forceful attitude, family issues in female elderly.

*Key words* : elderly, couple relationship, elderly couple conflicts scale, exploratory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